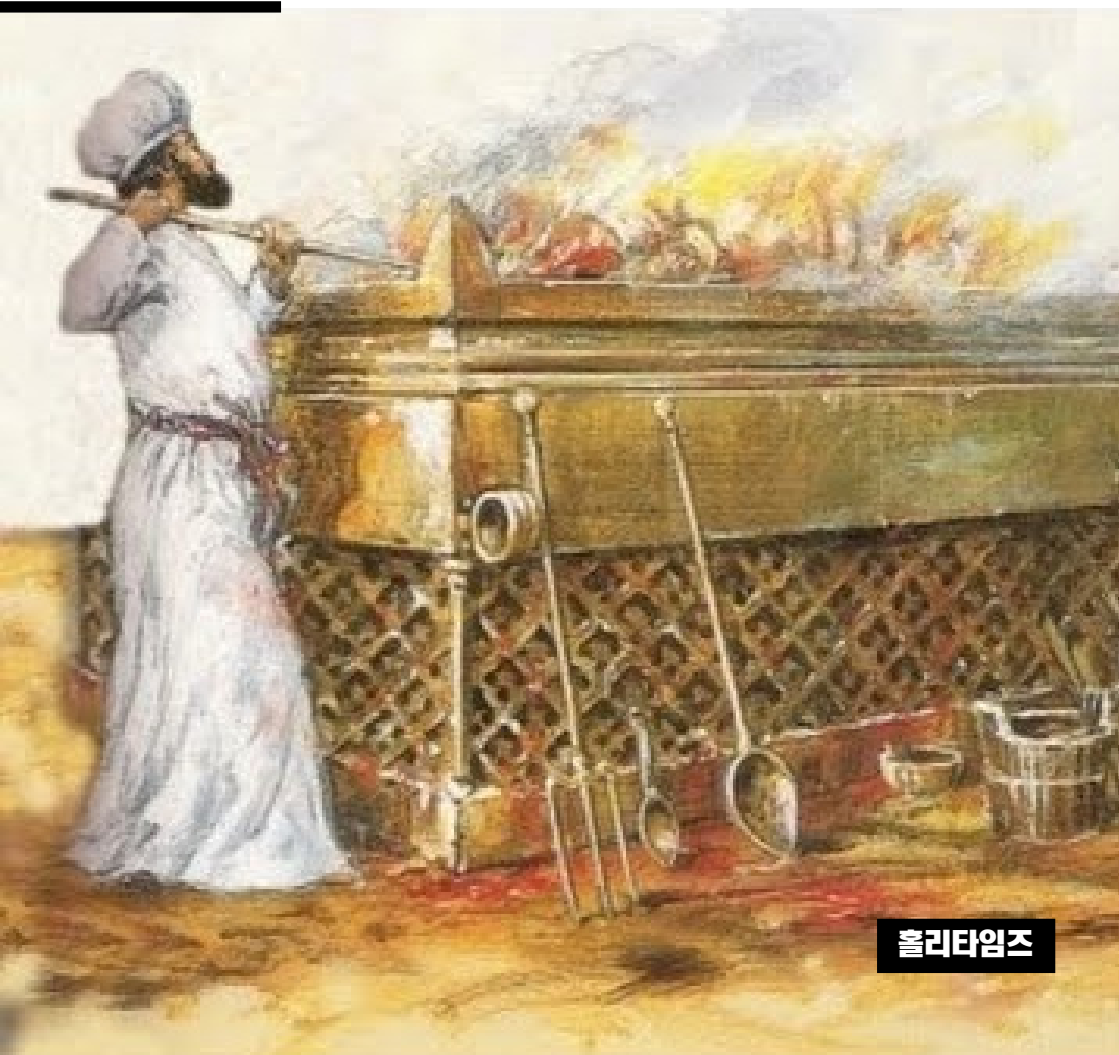


레위기반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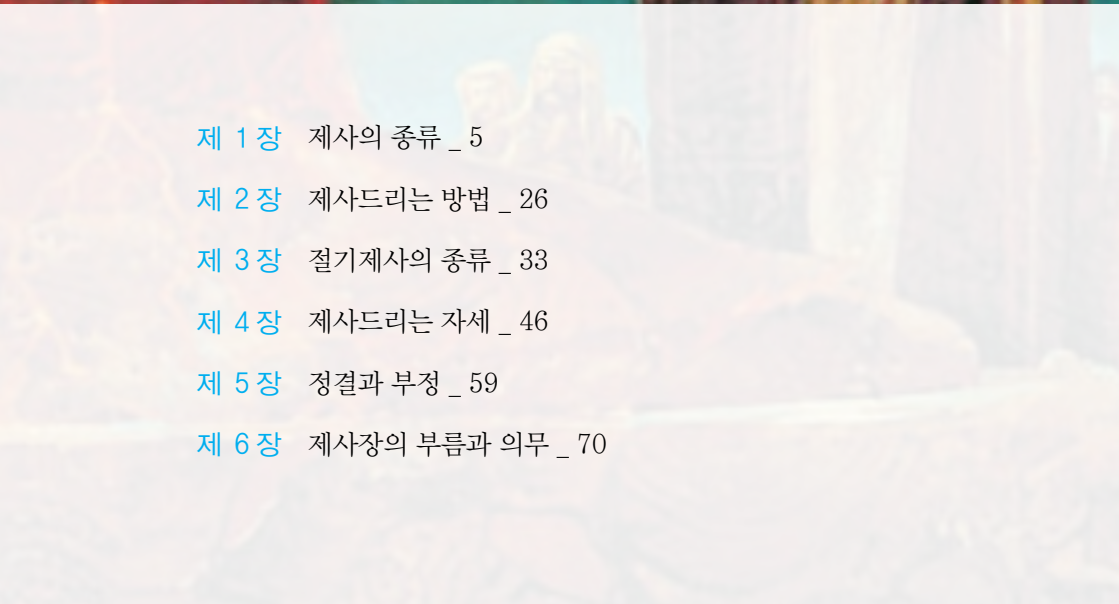


목차

CONTENTS





- 
- 제 1 장 제사의 종류 _ 5
- 제 2 장 제사드리는 방법 _ 26
- 제 3 장 절기제사의 종류 _ 33
- 제 4 장 제사드리는 자세 _ 46
- 제 5 장 정결과 부정 _ 59
- 제 6 장 제사장의 부름과 의무 _ 70







1 장

/

제사의 종류

제 1 장 제사의 종류

훈련 목적

- *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제사를 통한 영적 메시지를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레위기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번제(burnt offering)

가. 번제물을 가져온 주인이 직접 안수를 했습니다
단

- 1) 번제물을 가져온 당사자는 직접 번제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서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레 1:4-6).
- 2) 번제에 쓰일 짐승은 번제단 옆에 있는 번제소에서 죽였습니다. 번제소는 제물

[레 1:4]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 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 1:6]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로 쓰일 짐승을 죽이는 장소였습니다(레 4:29).

- 2) 번제짐승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번제짐승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레 1:11).

나.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 1) 번제짐승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졌습니다. 그렇게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들에 의해 번제단 사면에 뿌려졌습니다. 이렇듯 뿌려진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요 6:54).
- 2)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떠한 장자의 죽임을 겪지 않았습니다(출 12:22-23)
- 3) 이처럼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십니다(요 일 1:7).

다.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겨졌습니다.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1:11]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요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출 12: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1) 번제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겨졌습니다. 그 일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
다(레 1:8-9).
- 2)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럽고 힘든 일을 제
사장에게 맡기십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
어야 합니다. 힘든 일을 제사장이 먼저
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성도를 위
해 섬겨야 합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힘
든 일을 도맡아 행해야 합니다.

[레 1:8] 아론의 자손 제
사장들은 그 뜰 각과 머
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
여 놓을 것이며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
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
와께 향기로운 냄새니
라

라. 가난한 자도 번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 1)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번제물을 바
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새
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받
으셨습니다(레 1:4).
- 2)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물 받
치는 것에 대해 면제하지는 않으셨습니
다. 다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 3)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
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즐거운 심령으로 자원해서 행하길 원하

[레 1:14] 만일 여호와
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
을 삼을 것이요

[고후 9:6] 이것이 곧 적
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
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고후 9:7] 각각 그 마음
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 내는 자를 사랑하
시느니라

십니다(고후 9:6-7).

- 4)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물을 바치게 하시면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 3:8-12).

마.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 1)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 방법은 화제(Burnt Offering)입니다. 번제는 제사의 종류이지만 화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레 1:15-17).
- 2)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냄새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즐겨 받으십니다.
- 3)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서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서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니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 3:12]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이니라

[레 1:15] 제사장은 그 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둘기 곁고 단 위에 붙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레 1:16] 멧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레 1:17] 또 그 날개

2. 소제(grain offering)

가. 소제는 무엇인가?

- 1)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

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 3)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곡식을 빵아서 고운 가루를 내어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제에 사용된 기름은 감람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로써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유향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으며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 4) 하나님은 짐승으로만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처럼 곡식으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마 22:37-38).

나. 소제를 드리는 방법

- 1) 소제로 드러질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러졌습니다. 번제단에 화제로 드러질 수도 있었지만 화덕에 구워서도 드러졌으며 변철에 부쳐서도 드러졌습니다. 또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어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솔에 삶아서도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레 2:4-7).

- 2) 유황없이도 화덕과 변철과 솔을 이용하여 소제를 드리게 했던 것은 유황을 구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소제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3) 이러한 소제는 바치는 사람이 직접 행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정성 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현금만 바친다고 훌륭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어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 레위인이 남은 음식을 취함

- 1)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은 준비하여 가져온 소제물 중 일부를 취하여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레 2:8-10).
- 2) 소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돌려졌습니다. 남은 소제물을 가져온 백성에게

[레 2: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레 2:5] 변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레 2: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레 2:7] 네가 솔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레 2: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레 2: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찌니 이는 여호와와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돌리지 않고 레위인들이 취하도록 한 것은 소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민 18:8-9).

- 3)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물의 남은 음식을 레위인에게 주셨던 것은 레위인에게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스스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들 스스로 저들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라. 레위인은 거룩한 떡을 먹어야 합니다

- 1) 소제물의 남은 음식은 레위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레 6:15-18).
- 2) 누룩은 세상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먹는 떡이 누룩없이 먹는 떡에 비해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

[민 18: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도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민 18: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레 6:15]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레 6: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레 6:17] 그 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레 6: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다. 하지만 그러한 욕구를 없게 하신 것은 세상의 정욕을 없애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 3) 장막 안 뜰에서 먹게 하신 것 역시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음식을 나눠 먹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성막 뜰 안에서만 먹게 하셨습니다.
- 4)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들에게 강한 명령을 주신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쳐진 레위인들을 강하게 인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민 8:16).
- 5)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3. 화목제(peace offering)

가.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 1)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소, 양, 염소였습니다. 이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제물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상한제물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레 3:1).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사 1:13).
- 3)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사 1:18).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나.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 1)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스스로 예물 머리 위에 안수하였습니다. 이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화제로 드러져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사용되기를 소원함을 뜻합니다(레 3:2).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 3)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지길 원하는 심령으로 드러지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드러지기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할 때 화목제를 드렸지만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에도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4)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골 1:20).

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과

[레 3:2] 그 예물의 머리 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자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골 1: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습니다(레 3:14-17).

- 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은 기름과 피가 우리의 몸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기름과 피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좋지 않는 것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 3)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먹지 말아야 할 짐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레 11:3-23).

[레 3:14]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15]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 3:16]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르시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의 것이니라 [레 3: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 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라. 화목제에 사용되었는 제물의 종류

- 1) 화목제사에는 소, 양,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 외에도 기름섞은 무교병과 기름바른 무교병, 그리고 기름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곁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도 화목제로 드려지는 짐승과 함께 드려졌습니다(레 7:11-14)
- 2) 이러한 병과류는 거제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제'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드려지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레 7: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 7: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레 7: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마. 화목제의 종류

- 1)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낙헌제)'로 구분됩니다.

- 2)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낙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는 달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레 7:15-18).
- 3)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당일에도 모두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이처럼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도 말며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 4) 하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제에 비해 훨씬 시간적인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심령은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서원제와 자원제의 희생고기를 이튿날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 5) 만일 어떤 제사장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제삼일까지 남겨두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화목제는 열납되지 않았으며 가증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뿐아니라 그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렇게 죄를 범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 6)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원하여 드린 성도의 헌금을 저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곧장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삼일 까지 고기를 남겨두어 먹은 제사장에게 죄가 임하듯이 성도의 드린 서원헌금이 나 자원헌금을 오래도록 저축하고 남겨둔다면 하나님의 죄가 없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드러지는 서원헌금과 자원헌금은 작정헌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바. 오직 깨끗한 자만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 1) 화목제로 사용된 희생고기는 정결한 고기여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면 그 누구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아니되었습니다. 먹지 말고 고기를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또한 화목제 희생고기는 오직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레 7:19-21).
- 2) '깨끗한 자'라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육적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제사장은 희생 고기

[레 7:19]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레 7:20]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레 7:21]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졌습니다.

사. 화목제는 본인이 직접 번제단에 가져와야 합니다.

- 1) 화목제를 화제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번제단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은 우리 스스로임을 의미합니다(레 7:29-30).
- 2)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은 교회모임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못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화목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 1)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모두 아론의

[레 7:29]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레 7:30] 여호와와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여 요제를 삼고

자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편 뒷다리는 번제의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머지 요제로 흔들어 바쳐진 가슴과 나머지 부분들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습니다(레 7:31-34).

- 2) 하나님은 수고한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수고한 자가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 3)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의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을 되심으로 성막의 제사에 쓰여지고 남은 음식으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레 7:35-37).
- 4) 이렇듯 제사장에게 남은 음식이 돌아갈 수 있었던 제사는 모든 제사에 해당되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모두 희생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레 7:31]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레 7: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레 7:33]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레 7: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들 가슴과 그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 7:35] 이는 여호와와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레 7:36]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레 7:37]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4. 속죄제(sin offering)

가.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 1)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와 금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계명을 뜻합니다(레 4:2-4).
- 2) 고의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거나 부주의함으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3) 제사장은 속죄제로 드러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 이는 속죄제가 다른 제사에 비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엔 단순히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오직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로 여기고 장로들로 하여금 속죄제로 드렸는데 이렇게 속죄제로 드러질 때만 행해졌습니다(레 4:5-7).
- 4) 속죄제 의식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 뿌림이 매우 복잡하며 회막 안에서까지 피를 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레 4: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레 4: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 4: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께서 이처럼 속죄제의 경우에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지성소앞의 분향단에 피를 바르도록 한 것은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나. 속죄제의 짐승은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하였습 니다

- 1)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에 쓰였던 짐승은 반드시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하였습니다. 속죄짐승의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태웠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속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가시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속죄제로 드러졌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레 4:11-12).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히 13:11-12).
- 3)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렸습니다(히 10:19-20).

[레 4: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레 4:12]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다.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 장로가 대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 1)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 회중의 장로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죄를 지도자들이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레 4:13-15).
- 2)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엔 단순히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휘장에 피를 일곱 번 뿌렸습니다(레 4:16-18).
- 3)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피를 함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레 4: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레 4: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레 4:15]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 4: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5.속건제(trespass offering)

가. 죄에서 깨끗하기 위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 1) 속건제가 속죄제와 가장 두드러지게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지냈던 제사였지만 속건제는 일상생활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필요한 제사의식이었습니다(레 5:2-6).

- 2) 정결함은 속건제와 같아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뜻합니다. 반면에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레 5:2] 누구든지 부정
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
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
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
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
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
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3] 혹시 부지 중에 사
람의 부정에 다닥쳤는
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
떠한 부정이든지 그것
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
이 있을 것이요 [레 5:4]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
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
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
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
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
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
이 있을 것이니 [레 5: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
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
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레 5:6] 그 범과를 인하
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
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
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
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
물을 위하여 속죄할지
니라





2 장

/

제사드리는 방법

제 2 장 제사드리는 방법

훈련 목적

- *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제사를 통한 영적 메시지를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레위기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화제(fire offering)

가. 화제는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 1) 화제는 모든 제사종류에 사용되었습니다 (민 28:1-2).
- 2) 소제는 곡식과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지만 소제에도 번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민 2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28: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나. 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사람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입니다.

- 1) 화제 방법이 제사 중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불로 태우는 제사 방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방법이기 때문입니다(레 3:5).
- 2)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레 2:1-3).
- 3) 하나님께서 이처럼 화제 방법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주로 '불'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 4) 하나님은 성막의 성물 중 번제단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명하셨습니다(살전 5:19).
- 5)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불로 표현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셨을 때 마치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행 2:1-3).
- 6)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주 '불'로 표현하고 있으며 '불'은 곧 모든 악한 것을 태우며 또한 빛을 내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 3: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살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1Th 5:19]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NIV)

[행 2:1]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2. 요제(wave offering)

가.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 1) 제사장은 요제로 드려질 제물을 손에 들고서 앞으로 뒤로 흔들기도 하고 또 위에서 아래로 흔들기도 했습니다(레 23:20).
- 2) 앞으로 흔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미이고 뒤로 흔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레 7:30).
- 3) 요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기 때문에 모든 제물이 제사장 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 4)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요제물을 선물받습니다. (겔 44:30) 성도는 요제물을 받기 위해 제사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벧전 2:9).

나. 레위인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졌습니다(민 8:11-13)

- 1)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도록 한 이유는,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민 8:15).
- 2)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는 누구든

얕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행 2:3]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레 23:20]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레 7:30] 여호와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겔 44:30]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 요제로 하나니께 드려져야 합니다.

- 3) 요제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서 스스로 깨끗한 후에 요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민 8:21-22).
- 4) 성도는 모든 더러움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 앞뒤좌우로 흔들어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제물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3. 거제(heave offering)

가. 거제는 요제와 매우 흡사한 제사방법입니다.

- 1) 거제는 요제와 달리 거제물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 2) 'heave'라는 뜻은 무거운 것을 들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로 들어올리는 일이 그만큼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예물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 3)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제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민 8: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민 8:12]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를 안수케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민 8:13]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민 8:21] 레위인이 이 예 죄에서 스스로 깨끗케 하고 그 옷을 빨 때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케 한 [민 8:22]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좇아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감사하여 하나님께 일부를 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막 10:29-30).

- 4)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레 7:34).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 5)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이는 '거제물'을 뜻하는데 '넓적다리'나 '어깨'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사장들은 거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마음 속에는 '아~ 넓적다리'라는 생각으로 드려졌을지도 모릅니다.
- 6) 거제는 고기 뿐만 아니라 소산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레위인들을 고기와 소산물로 먹이셨습니다(민 15:20-21).

[막 10: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막 10: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고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레 7: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혼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민 15:20]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민 15:21]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민 15:5]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힌의 사분 일을 예비할 것이요

4. 전제(drink offering)

가. 전제는 다른 방법과는 매우 독특하게 포도주를 붓는 방식으로 드려집니다(민 15:5)

- 1)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떡상)에는 떡만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포도주를 담은 병(jar)이 있었고 술을

따르는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출 25:29-30).

- 2) 진설병상에서는 전제 의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3) 전제 의식은 독자적으로 드러지기 보다는 소제나 번제와 같은 제사와 함께 곁들여 드러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 삶을 살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 4)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전제가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포도열매가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갈아지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자기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빌 2:17).

[출 25:29]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
들며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빌 2:17] 만일 너희 믿
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
하리니





3 장

/

절기제사의 종류

제3장 절기제사의 종류

훈련 목적

- *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제사를 통한 영적 메시지를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레위기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상번제(regular burnt offering)

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민 28:3-8)

- 1) 백성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수양을 상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 2) 이것은 온전히 화제로 드려졌습니다. 화제로 드려질 때 소제와 전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 3) 화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는 고운가루

[민 28:3]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민 28:4]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민 28:5] 또 고운 가루에 바 싯분지 일에 뿔아낸 기름 한 사분지 일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민 28:6]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민

에바 십분지 일에 뿔아낸 기름 힌 사분지 일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민 28:5).

- 4)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렸습니(민 28:7).

나. 상번제의 영적인 의미

- 1) 고운가루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곳에 기름을 섞는 것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상한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 2) 독주는 세상의 것이지만 이 독주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보다 정결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 3)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롬 12:1).

28:7]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힌 사분지 일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민 28:8] 해 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안식일 제사(offering of the sabbath day)

가.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다가 안식일의 제사까지 더해서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대략 상번제의 2배 정도의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민 28:9-10)

나.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린 수양 두 마리
와 기름섞은 고운가루 십분의 이 에바의 소제
와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평일에 드려지는 제사보다 안식일에 드려지는 제사는 더 특별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 28:9] 안식일에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민 28:10]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민 28:11]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민 28:12]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가루 에바 십분지 삼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민 28:13] 매 어린 양에는 고운가루 에바 십분지 일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민 28:14]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힌이요 수양 하나에 삼분지 일 힌이요 어린양 하나에 사분지 일 힌이니 이는 일 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민 28:15]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3. 월삭 제사(offering of the new moons)

가. 월삭에는 매일 행하는 상번제 외에 세 종류의 번제물이 함께 드려졌는데 각 번제물마다 소제와 번제가 첨가되었습니다(민 28:11-15)

- 1) '월삭'은 음력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달의 첫째날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 종교력과 함께 민간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력과 민간력은 달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는 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2) '수 송아지(bullock)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3/10 에바(Ephah)의 소제와 포도주 1/2힌(Hin)의 전제가 드려졌으며 '수양(ram)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2/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3힌 전제가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 양(lamb)의 번제물'에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1/10에바의 소제와 포도주 1/4힌의 전제가 드려졌습니다. 거기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졌습니다.

나. 월삭제사의 영적의미

- 1) 월삭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것은 지난 달의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 2)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고후 5:17).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민 28:16] 정월 십사일 은 여호와와 유월절이며 [민 28:17] 또 그 달 십오일 부터는 절일이니 칠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민 28:18]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말 것이며

4. 유월절 제사(passover offering)

가. '유월절'은 정월 십사 일에 드려졌습니다(민 28:16-18)

- 1) '이는 종교력의 첫 달인 아빍월에 이뤄졌

습니다. 양력으로 계산했을 때 3-4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 2)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출 12장 참조).
- 3)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절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 4) 유월절이 1월 14일에 가졌지만 무교절은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모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나. 하나님은 무교절 첫째날(1월 15일)과 마지막 날(1월 21일)인 제칠일째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 1)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만 집중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 2) 유월절로 모인 날에는 각 가정마다 어린양을 잡아 가족끼리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 하

나님께 조석간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 3)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월삭때 드리는 제물과 같이 드려야 했습니다(민 28:19-25).

5. 칠칠절 제사(pentecost offering)

가. 칠칠절(오순절, 맥추절) 역시 무교절 첫째날과 마지막 날처럼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민 28:26)

- 1) '칠칠절'은 밀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유월절 이후의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 2)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일곱번째 안식일을 마친 다음날 주일에 지켜졌습니다.
- 3)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명절에 해당됩니다.
- 4) 오순절의 제물은 월삭 때 드리는 제물과 동일합니다(민 28:27-31)

나. 칠칠절(오순절, 맥추절)은 성령강림과 연관이

[민 28:19]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민 28:20]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를 드리고 [민 28:21] 어린양 일곱에는 매 어린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22]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민 28:23]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 28:24] 너희는 이 순서대로 칠 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민 28:25] 제칠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민 28:26]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8:27]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8:28]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있습니다.

- 1) 오순절과 무교절이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무교절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무교절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 2) 성령강림 사건이 오순절 절기 때에 이뤄졌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오순절과 영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나팔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rumpets)

가. 하나님은 나팔절 날에 성회로 모이게 하셨으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민 29:1)

-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종교력의 7월(티스리월)은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신년을 의미합니다.
- 2) 이 신년날에 나팔을 불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 3) 나팔절 때의 번제제물이 수송아지 한 마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월삭 때의 번제제물과 동일합니다(민 29:2-6)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8:29]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8:30]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민 28:31]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민 29:1] 칠월에 이르러는 그 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민 29:2]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일곱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민 29:3] 그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4]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을 드릴 것이며 [민 29:5]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민 29:6]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 4)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 수송아지, 수양, 어린양에 따라 각각 소제의 양과 전제의 양이 달랐습니다.

나.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 1) 신년이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 2) 우리는 이렇듯 새롭게 살지 못하게 붙잡는 것들을 향해 과감하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팔을 불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 3)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고후 5:17)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7. 속죄일 제사(offering of the Yom Kippur)

가. 대속죄일은 일년에 한 차례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 1년 중 이 날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집행합니다(민 29:7-11)

[민 29:7] 칠월 십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민 29:8]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

- 1) 종교력 칠월 십일(7월 10일)은 민간력으

로 1월 10일에 해당됩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 2)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제물은 나팔절 때와 같습니다. 또한 번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와 전제의 양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 3) 하지만 대속죄일 때는 백성의 죄와 대제 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물이 첨가되었습니다.

나. 속죄일제사의 영적인 의미

- 1) 하나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 2) 특별히 대속죄일 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이니템>인데 이는 '거칠게 다르다', '억누르다', '겸손해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이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자신의 모든 세상의 정욕을 억누르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수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민 29:9]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삼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십분지 이요 [민 29:10] 어린 양 일곱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십분지 일곱을 드릴 것이며 [민 29:11]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8. 장막절 제사(offering of the feast of tabernacle)

가. 초막절은 출애굽 후 광야생활 했던 것을 기념

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민 29:12)

- 1)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총 8일 동안 지켜졌습니다.
- 2)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서 수확되어진 소출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기도 해서 '수장절'(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도 불립니다.
- 3) 초막절 총 8일 동안의 제사는 서원제, 낙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로 드려졌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훨씬 다양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 4) 첫날에 드려지는 수송아지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한 마리씩 적어졌습니다. 첫날은 수송아지가 13마리 드려졌는데 2일째는 12마리, 3일째는 11마리가 드려졌고 점점 그 수가 적어져서 7일째는 수송아지 7마리가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수양 2마리와 어린 수양 14마리가 똑같이 드려졌습니다
- 5) 제물의 규모는 나팔절과 대속죄일 때 드려진 것과 같았습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 어린양 7마리가 드려졌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도 어린양 2마리가 드려졌습니다.

[민 29:12] 칠월 십오일에는 너희가 너희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칠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 6) 제 8일째는 거룩한대회로 모여졌습니다.
7일동안은 각 가정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8일째는 거
룩한대회로 함께 모여서 초막절 마지막
을 장식한 것입니다.

나. 초막절제사의 영적의미

- 1)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를 함
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담은 제사입니다.
- 2) 초막절 때 드려지는 다양한 제사방법 중
의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정으
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제사와 감사제사를 포함하여 '화목제'
에 해당됩니다(민 29:39-40)
- 3) 시대가 바뀌었다 해서 제사가 없어진 것
은 아닙니다. 바뀐 시대라고 해서 제사가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처럼 짐
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여
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제사는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

[민 29:39] 너희가 이 절
기를 당하거든 여호와
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
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
제 외에 번제, 소제, 전
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
니라 [민 29:40]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
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
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4 장

/

제사드리는 자세

제 4 장 제사드리는 자세

훈련 목적

- *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제사를 통한 영적 메시지를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레위기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성막에서는 짐승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짐승을 가져온 당사자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 하였습니다(레 1:4). 이는 스스로 짐승처럼 하나님께 드려짐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레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 (그룹제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왜 짐승을 가져온 사람은 그 스스로 짐승의 머리에안수하였을까요? 제사장이 안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안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스스로 주님의 보혈로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 바쳐지는 짐승은 성막뜰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레 1:5-6).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앞 번제단 사면에 뿌렸으며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겨졌으며 각 뜯은 육체와 내장과 정갱이와 머리와 기름은 모두 번제단의 불에 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습니다(레 1:8-9). 이렇듯 태워진 짐승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죽이고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나는 스스로 불태우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약속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은 불로 태워져야만 했습니까? 왜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고 있습니까?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1:6]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레 1: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뜯은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놓을 것이며 [레 1:9]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3.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번제 짐승은 번제소에서 죽임을 당하여 그 피는 번제단에 뿌려졌습니다(레 1:11). 짐승의 피는 곧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로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악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보혈을 뿌림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번제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성막의 모든 흘린피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4.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레 1:14).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자들은 새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까?

[레 1:11]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1:14]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5.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렸는데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레 3:1).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절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즐겨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은 흠 있는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할까요? 당신은 흠 없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6. 속죄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피를 뿌리고 바르며 부어졌습니다(레 3:2). 이는 속죄의 식에 있어 보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속죄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게 하셨을까요? 속죄제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부어졌던 짐승의 피는 무엇을 상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징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7.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피우게 하셨습니다(레 6:9). 이는 우리의 헌신이 계속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번제단의 짐승의 태워지는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명하셨을까요? 당신의 헌신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습니까?

8. 번제단 위에서 태워진 짐승의 재는 제사장이 관리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를 벗은 뒤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서 짐승의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레 6:10-11).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벗고서 재를 진 밖으로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세마포는

[레 6:9]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 6: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레 6: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의 더러운 것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9.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초태생의 제물로 바쳐진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여야 하며 그 어떠한 세상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의 제물로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레 6:16-18)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 대신 누구를 대신 사용하셨습니까? 왜 레위인에게는 세상의 기업이 없을까요? 당신은 세상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10. 속죄제로 드려지는 짐승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짐승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토기로 고기를 삶았을 경우엔 토기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레 6:26-28). 고기의 피가 그릇에 묻어 정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레 6: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레 6: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레 6: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레 6: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6:26]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레 6:27]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레 6:28]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토기에 고기를 삶았을 때 토기를 깨뜨리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정결과 거룩함을 요구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11. 화목제로 사용되었던 무교병과류와 제육은 제사장들이 서로 모여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레 7:11-14).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나눠 먹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도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화목제로 사용되어진 무교병과류와 제육을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웃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12. 화목제로 사용되었던 무교병과류와 제육은 오직

[레 7: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 7: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레 7: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자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정한 자가 그것을 취할 경우엔 화목제가 무효가 되었으며 먹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레 7:15-18). 이처럼 하나님은 정결과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원한다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만이 화목제로 사용된 무교병과류와 제육을 나눠 먹게 하셨을까요? 왜 부정한 자가 먹을 때에 화목제가 무효가 되었으며 부정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정결과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당신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13.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저들을 삼킴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레 10:1-2). '다른 불'은 세상의 불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나올 때 세상의 것이 아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닌 주님께서 명한 대로 지켜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다른 불'은 하나님의 명한 불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명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 있습니까?

14.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시길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습니다(레 10:8-9).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명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거룩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명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15. 모세는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라짐을 알고서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냈습니다(레 10:16-17). 속죄제 희생제육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백성의 죄가 속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성도의 현금

[레 10: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0: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레 10:16]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레 10:17]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을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합당하게 취해야 함을 뜻합니다. 만일 헌물을 부정하게 취할 경우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될것입니다. 내가 드린 헌물이 사역자와 목회자들에게 합당하게 취해지고 있습니까? 혹 나는 성도의 헌금을 부정하게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죄제 희생제육이 불살라진 것에 대해 화를 냈을까요? 제사장이 속죄제 희생제육을 먹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요? 성도의 헌물이 사역자와 목회자에 의해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16.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시다(레 10:18-20).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 갑니까?

▶ (그룹제안) 아론이 아들의 죽음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만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같습니까?

[레 10:18]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레 10:19]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레 10:20]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17. 하나님은 아론에게 무시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레 16:2). 이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함으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또 다시 아론이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아론조차 지성소에 못들어오게 제한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5 장

/

정결과 부정

제 5 장 정결과 부정

훈련 목적

- *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제사를 통한 영적 메시지를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레위기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만한 생물과 먹어서는 안될 생물을 구분하셨습니다(레 11:2-8). 먹을만한 생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해당치 않으면 먹어서는 안될 생물로 취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로 구분시켜 놓은 것은 우리의 건강때문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음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레 11: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레 11:3]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 11:4] 새김질하는 것이 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악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 11:5] 사반도 새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굶이 갈라져 쪽발된 짐승과 새김질하는 짐승만 음식으로 취하도록 하셨을까요? 굶이 갈라져 쪽발된 짐승과 새김질하는 짐승은 그렇지 않는 짐승에 비해 실제로 정결한 짐승인가요? 당신은 건강을 위해 정결한 음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 여기시며 그런 자들은 속히 그 옷을 빨라고 명하셨습니다(레 11:26-28). 부정한 것을 만지고 부정한 것을 생각하고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할 때 우리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시며 그 옷을 빨라고 명하셨을까요? 당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부정한 모든 요소를 없애며 스스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3.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하셨습니다(레 11:45).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

김질은 하되 굶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 11:6]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굶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 11:7] 돼지는 굶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레 11:8]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 11:26] 무릇 굶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레 11:27]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1:28]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하셨을까요? 거룩함이란 세상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과 구별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4. 하나님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을 때 부정하다 여기시고 각각 부정한 기일이 찰 동안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의 출입도 금하게 하셨습니다(레 12:2-5).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창조 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정결한 자세로 자녀를 잉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창조능력을 정결하게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한 여인을 부정하다 여기시며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며 성소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창조능력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실까요? 당신

[레 12: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 12:3] 제팔 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벌 것이요 [레 12:4] 그 여인은 오히려 삼십 삼 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레 12:5]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신록 일을 지나야 하리라

은 생명창조능력을 정결하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5.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문둥병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발랐습니다. 또한 기름을 취하여 같은 장소에 발랐습니다(레 14:14-20). 이것은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보혈로 정결해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제사장은 왜 문둥병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과 발의 엄지가락에 피와 기름을 발랐을까요? 당신은 보혈을 통해 정결해지고 성령의 기름을 통해 성령충만해짐을 믿습니까?

6.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음행하는 자 중에서 골육지친과 음행을 저지르거나 동성연애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레 18:22-23). 이러한 행위는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적인 행위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쾌락이나 정욕대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 14:14]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레 14:15] 제사장은 또 그 한룩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레 14:16]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요 [레 14:17]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레 14:18]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레 14:19]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회생을 잡을 것이요 [레 14:20]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레 18:22]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 18:23] 너는 짐승과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적 능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
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
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
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6 장

/

제사장의 부름과 의무

제 6 장 제사장의 부름과 의무

훈련 목적

- *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제사를 통한 영적 메시지를 이해한다.
- * 레위기의 영적인 흐름을 깨닫는다.
- *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

한주간 숙제

- * 레위기를 정독한다.
- * 날마다 성막기도를 드린다.
- *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 * 받은 은혜를 영성일지로 남긴다.

1.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식을 가질 때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레 8:2-3).
 - 1) 이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삼기 위함입니다.
 - 2)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이는 결혼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3)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레 8:2]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레 8:3]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요한에게 나아가 온 백성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가장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레 8:6).

1)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결함을 뜻합니다.

2)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3.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행했습니다(레 8:22).

1) 이것은 저들 스스로 짐승이 되어 죽여짐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4. 제사장에게 피가 발라졌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수양의 피를 발랐습니다.(레 8:23) 모세가 수양의 피를 발랐던 장소는 세 군대입니다(레 8:24).

1)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입니다.

2) 오른 귓부리에 피를 바른 것은 세상의 소리를

[레 8: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레 8:22]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의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

[레 8:23]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레 8: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든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엄지가락에 뿌리는 것은 세상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른발 엄지라각에 피가 뿌려진 것은 세상에 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5. 제사장에게 관유가 부어졌습니다.

- 1) 모세는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레 8:30).
- 2)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할 때 누구든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 8:30]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6. 위임식 기간동안 회막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 1) 제사장은 7일 동안 회막문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 2) 성막에는 성막뜰이 있어서 바깥 공기를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정도 있지만 회막은 그야말로 꼭 막혀있는 공간입니다. 불과 20규빗과 20규빗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 3)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7일 동안 회막 안에 거하게 명하신 것은 저들이 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습다.

7.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레 10:1-2).

- 1)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 2) '다른 불'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제작된 불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향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 3)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8.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회막에 들어가 의식을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레 10:8-9).

- 1) 포도주나 독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제사장도 있었겠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 2) 만일 누구든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회막에 들어가 의식을 수행할 때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3)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의식을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취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레 10: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10:9]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 4)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정욕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드러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10. 제사장은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가 정결함은 세상에서의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레 10:10).

- 1) 속된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며 부정
한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 2)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것과 속
된 것을 분별해야 하며 정결한 것과 부정
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케 하라 명하셨습니다(민 8:6-7).

- 1) 모세는 레위인을 정결케 하되 속죄의 물
로 먼저 그들에게 뿌린 후에 그들의 전신
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 2) 그런 다음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아론으
로 하여금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
쳤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영육간의 정
결함을 취하였습니다.
- 3)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
해 먼저 영육간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레 10: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
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민 8:6]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
여 정결케 하라 [민 8:7]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
을 정결케 하되 곧 속죄
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
고 그들로 그 전신을 삭
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
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
케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육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라 명하신 것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봉사케 하기 위함이셨습니다(민 8:11-15).

- 1) 아론은 먼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레위인을 속죄하였습니다.
- 2) 그런다음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 3)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였습니다.
- 4) 이렇게 레위인이 정결의식을 모두 치른 다음에서야 저들은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들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 결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율을 제정하셨습니다(레 21:7).

- 1) 성막의 제사장 직분이야 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 2)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

[민 8: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민 8:12]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를 안수케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민 8:13]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민 8:14]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민 8:15]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레 21:7]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는 안 되었습니다.

- 3) 또한 제사장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레 21:14).

마.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은 시체 곁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레 21:1-3)

- 1) 제사장은 일반적인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2) 다만 제사장들의 부모, 자녀,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셨습니다.
- 3)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처럼 죽음을 슬퍼하여 삭발하거나 수염을 깎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경우는 더욱 지켜야 할 사항이었습니다(레 19:28).

바.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제사장과 달라서 친부모의 시신조차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레 21:11).

- 1) 대제사장은 친자식이 죽어도 슬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 2)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을 사용하다가 불이

[레 21:14]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레 2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 21:2]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레 21: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레 19: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1:11]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 지게 말며

그들을 삼켜 죽임을 당하였을 때 모세는 아론으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라 명하였습니다(레 10:6).

11. 제사장은 초태생으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가.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민 8:16-18).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초태생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출 13:2).
- 2)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모든 장자를 살리셨기때문에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출 13:15).
- 3)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먼저 영육간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육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나. 이러한 초태생의 법은 구약시대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 1) 십일조가 초태생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레 10: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와 친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와 친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 13:15] 그 때에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 2) 십일조는 십일조이며 초태생의 법은 여전히 초태생의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민 18:26).
- 3) 성도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하며 초태생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초태생의 법은 처음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의 처음 것과 짐승의 처음 것과 재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2. 제사장이 되려면 신체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가.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사장을 원하셨습니다(레 21:21).

- 1) 제사장의 몸에 어떠한 흠이라도 있으면 그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 2)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흠에 대해 12가지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레 21:18-21).

나. 하지만 아론의 자손 중에 신체적 결함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지성물이나 성물을 나누어 가질 수는 있었습니다(레 21:22-23).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니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을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 21: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레 21:18]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레 21:19]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레 21:20] 곰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레 21: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

[레 21:22] 그는 하나님
의 식물의 지성물이든
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
이나 [레 21:23]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
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
하게 하는 여호와임이
니라

레위기반 교재

초판발행 2014. 12. 2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595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의 신학교로서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6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입학이 가능하며 한부분 사역자일 경우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 접수: www.wslseminary.com
- 이메일: inourlove@gmail.com

- 문의: 손에스더목사(010-3909-8844)
- 유튜브채널: www.RevivalForChurch.com